

광주시민과 외국인, 음악으로 하나되다

26일 문화전당서 '오월음악회'
광주국제교류센터 주최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 연주
세계 다양한 민속노래 눈길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오월음악회 공연 모습.

(광주국제교류센터 제공)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 시민과 외국인이 하나 되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제17회 오월음악회'가 오는 26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2)에서 개최된다. 올해의 주제는 '100년에서 100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이 개최한 '오월 평화 축제(May Peace Festival)'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준현이 연주하는 쇼팽의 '발라드 제1번 Op.23'으로 막을 올린다. 플루티스트 이현경·첼리스트 진채리의 연주로 글리에르의 '플루트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Op.39'를 선보이고, 바이올리니스트 최수아·첼리스트 오승석·피아니스트 이성은이 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든존스·피아니스트 앤드류가 연주하는 영화 '윈들러 리스트' OST도 준비돼 있다.

다양한 오페라 곡도 마련돼 있다. 소프라노 길예림이 이원주의 '베를레노래'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여

자는 다 그래' 중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를 선보이고, 바리톤 방대진의 목소리로 베르디의 오페라 '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네 고향으로'를 무대에 올린다.

우리나라 민요와 가곡을 한데 모은 공연도 펼쳐진다. 소프라노 박경숙·이명진이 김현옥의 '아리랑(편곡)', '오래된 도시의 아침'을 노래하고, 소프라노 김선희·박수연·김미옥·이찬순과 테너 강동명·고규남, 바리톤 김대수가 가곡 '얼굴', '기다리는 마음', '봄치녀', '입이 오시는지', '청산에 살리라',

'목련화'로 무대를 장식한다.

세계의 다양한 민속 노래로 꾸미는 무대도 눈길을 끈다. 'GIC 시민합창단'이 정국주 지휘자의 지휘로 '주 너를 지키시고', '로몬드 호숫가', '새야새야', '경복궁타령' 등의 곡을 선보인다. 이번 반주는 피아니스트 천현주·최유진이 맡았다.

대마는 모든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김현옥이 편곡한 '입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막을 내린다. 전석 무료. 문의 070-4453-723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토의 시인' 조태일 문학상 제정

기념사업회, 상금 2000만원
6월 1일~7월 31일까지 공모



로60 광주문화예술회 관 별관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제1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조태일 시인은 광주 서중과 광주고를 거쳐 경희대를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등을 펴냈다. 1969년 '시인'지를 창간한 이래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1989년부터 광주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1999년 9월 7일 간암으로 타계했다. 편운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3년 조태일시문학관이 태안사 계곡에 건립됐다.

'국토의 시인' 조태일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됐다.

곡성 출신 조태일(1941~1999·사진) 시인은 1970~1980년대 군사독재시대에 맞서 시와 행동으로 저항했던 남도의 대표 문인이다.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타계 20주기(9월 7일)를 앞두고 제정된 제1회 조태일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문학상은 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 작가회의, '창비', '문학들', '시인' 등 문학계가 후원한다.

상금은 2천만원,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공모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직접 응모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요강 및 응모서류는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광주시 북구 북문대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7일 곡성군에서 열리는 시인 20주기 문학축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10-3901-5367. /박성천 기자 skypark@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소재로 시집 발간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 '대흥사는 천강에...' 펴내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를 주제로 한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사찰을 소재로 한 권의 시집을 펴내는 일도 이례적이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천년고찰을 소재로 60여 편의 작품을 엮어낸 것 자체가 이채롭다.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이 이번에 펴낸 '대흥사는 천강에 얼굴 내민 달이 꿈이다'(사외재)는 대흥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시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작품집은 '현판 대응보전', '현판 가허루', '현판 표충사', '운장대', '집계루', '천불전', '무염지', '동국선원', '일지암', '북미르암' 등 대흥사와 관련된 공간과 현판, 경내의 다양한 처소를 형상화했다. 볼가에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풀이 낼 수 없는 시들은 저마다 깊이와 울림을 준다.

무엇보다 한 권의 시집을 읽다보면 대흥사 경내는 물론 주위의 산세, 수도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정진의/ 정진에 의한/ 정진을 위한 삶을 사는



/ 대흥사는 천강에 얼굴 내민 달이 꿈이다// 우주의 등불인 달처럼/ 사바세계 중생들의 마음의 등불이 되고자/ 정진하라/ 판 데다 한눈팔 틈이 없다..."(대흥사는 천강에 얼굴 내민 달이 꿈이다' 중에서)

표제는 "정진의, 정진에 의한, 정진을 위한 삶을 사는" 대흥사 도량의 모습을 담고 있다. 품이 넓은 대흥사의 지극한 면모가 시 속에 드러내져 있다. "사바세계 중생들의 마음의 시계가 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입을 봉한 달을 달아 전혀 티를 내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를 방증한다.

김재석 시인은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떠오른 시상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며 "시를 쓰는 것도 한편으로는 수행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아시아 퍼레이드·10개국 음식 체험 등 다채

25일 수완호수공원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우리+우리...차이를 즐기자'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이 25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은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일환으로 개최되며 올해 슬로건은 '차이를 즐기자'이다. 전국 26개 무지개다리사업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문화재단은 올해 9000만원을 지원 받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광산구의 제7회 세계음식 문화축제와 연계해 개최되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 세계 10개국 음식 체험 부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시아 체험부스에서는 남아시아의 장신구인 주리, 천연염료를 이용한 헤나 그리기 및 빈디 찍어보기 등을 진행하며 전통문화 체험부스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고유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페스티벌의 주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5개국 이주민들로 구성된 아시아 전통 의상 퍼레이드를



지난해 열린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모습.

비롯해 Fiat Domini 소년 합창단 공연과 GIC 국제교류센터 시민합창단 공연, 신디매지의 매직별문쇼,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의 관객 참여형 점배공연 등 다양한 작품이 올려질 예정이다. 문의 062-670-74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를 위한 '제로플린쇼'

25일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오는 25일 어린이를 위한 매직쇼 '제로플린쇼'를 오후 5시 박물관 중앙홀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로플린쇼'는 감성광대 Zero의 1인 버라이어티 쇼다. 채플린의 감성과 감동, 웃음은 물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공연은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텔링 마술과 어린이를 위한 코믹저글링, 코믹마임, 별문쇼를 조합해 관객 참여형 '제로플린쇼'로 진행된다. 또한 6월 29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프링



프링 마리의 마법학교 대모험', 7월 6일과 27일에는 각각 '물싸움 part 1', '블랙라이트 인형극-블랙라이트 종이아빠'가 펼쳐진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061-330-784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24일 영·호남 여성일자리 창출 세미나

'영·호남 여성일자리 창출 교류세미나'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 전남광역세일센터 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여성일자리 현황을 공유하고 세일센터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미숙 전남여성가족재단 정

책연구팀 연구원과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이 '새일 10년 향후 10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경주 전남광역세일센터장, 정성희 경남센터장, 김혜경 경북센터장, 이운애 전북센터장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1-260-7360-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주변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칙외산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